

# 문제 해결 중심 영암형 통합사례회의, 전남서 배워가

## 신안군·전남도 이어 순천시 공직자들, 영암군 복지전달체계 참관·학습

지역 복지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문제 해결 중심의 영암형 통합사례관리를 전남 곳곳에서 배워가고 있다.

전남 순천시 복지 공무원들이, 2일 영암군을 방문해 드림스타트 우수사례를 배워갔다.

이날 방문은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영암군 드림스타트의 통합사례관리 운영 방식, 지역 맞춤형 서비스 모델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것.

문제 해결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인 민선 8기 영암군은, 드림스타트 분야에서도 이를 적용 △위기가정 아동 조기 발굴 △통합서비스 맞춤 지원 △실무자 협업체계 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

순천시 공직자들은 영암군에서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체계, 사례관리 절차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민관협력 시스템 등을 들었다.

나아가 영암군의 통합사례관리담당사

등 전문 인력 배치, 아동 중심의 통합서비스 연계 사례에 관심을 보이며 질문도 이어갔다.

특히, 아동과 그 가족의 상황·욕구를 꼼꼼히 기록하는 데서 출발하는 통합사례관리, 위기 아동 관리를 총괄하는 현장 슈퍼바이저의 역할 등은 배울 점으로 꼽았다.

김하정 순천시 드림스타트 팀장은 “먼저, 사례관리 회의가 위기 아동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 분위기 속에서 화기애애하게 이뤄지는 것을 보고 놀랐다. 고난도 통합사례와 아동 통합사례가 함께 이뤄지며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상승효과를 내는 점도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순천시 공직자 이외에도 지난해 11월에는 신안군에서, 지난달 14일에는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에서 영암군을 찾아 드림스타트를 포함한 통합사례회의의 전반을 보고



배워갔다. 김승희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영암군의 통합사례회의의 장점으로 전문성과 서비스연계성을 꼽았다.

동시에 영암군의 통합사례관리는 다부처 협업 사례회의 운영, 실무 중심 대응체계 구축,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이 돋보인다고 덧붙였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의 통합사례관리는 위기에 처한 영암군민을 중심에 놓고, 행정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다가갈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 탈출을 돕는 사람 중심의 복지체계다. 영암형 통합사례관리 모델이 전국으로 퍼져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암/김희선 기자



## 진도 신비의바닷길 축제장 ‘건강증진 홍보관’ 호평

진도군은 제45회 진도신비의바닷길 축제를 맞아 ‘건강한 오늘, 더 건강한 내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이라는 구호를 설정하고, 축제 기간 4일간 지역 주민과 관광객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홍보관을 운영했다.

건강증진 홍보관은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해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건강에 관한 돌림판 퀴즈 행사, 흡연자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폐활량 측정,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혈압·스트레스 지수 측정 등 다양한 체험이 큰 호응을 얻었고, 금연·절주, 신체활동, 구강·영양 관리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맞춤형 치매·정신 상담도

함께 진행했다. 또한 바닷길 축제 현장에서 관광객과 지역 주민, 지역 내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여해 합동으로 운동(캠페인)을 추진하여 건강생활실천의 의지를 높이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진도군 노인건강과 관계자는 “제45회 진도신비의바닷길 축제를 찾은 많은 분이 건강증진 홍보관을 방문해 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일상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혔다. 진도/오재명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거리 곳곳에서 봄맞이 꽃단장에 한창이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유동 차량과 인구가 많은 주요 도로변과 가로수길, 공원에서 계절 꽃 식재를 비롯한 대대적인 환경정비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주까지 꽃양귀비를 비롯한 계절 꽃 18종, 23만여 본을 시정 사거리 및 교통섬 6개 가로화단, 대형화분 77곳에 식

## “거리 곳곳마다 꽃이 활짝” 나주시, 봄맞이 환경정비 구슬땀

### 봄꽃 23만여본 식재, 잡목 제거, 공원 정비 등 관광객 맞이 한창

재를 완료해 거리를 오가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봄 기운을 선사하고 있다. 오는 4월 5-6일 펼쳐지는 한수제 벚꽃축제를 앞두고 한수제 제방과 데크길, 공원 잡초 제거를 통해 쾌적한 나들이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내권 수목들도 수형조절을 통해 새롭게 단장한다.

시는 나주호 뱃나무 가로수길 10km 구간 잡목을 제거하고 지난 해에 이어 원도심에서 혁신도시 방향 1.5km 구간에 에메랄드그린과 꽃명강을 식재해 명품 가로수

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도시공원 26곳 낙엽 수거, 노후한 편의·놀이시설 점검·보수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이용을 도모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봄꽃, 수목 식재와 공원 정비 등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며 “벚꽃과 봄꽃이 만발한 나주에서 주말 나들이를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영 기자

광양시는 2025년 전라남도 상반기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해, 3개 분야에서 9개 기업이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재정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춘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취약 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기업의 지속적

##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 선정

### 광양시, 3개 분야, 9개 기업 1억6천2백만 원 지원

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규 시설·장비 구입 및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사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의 3개 분야로 나뉜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1월 모집공고를 시작, 2월 기업 현장실사를 거쳐 3월에는 전남도 실무위원회에서 사업

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심사했다. 그리고 그 결과 관내 총 9개 기업(일자리창출 1개사, 사업개발비 3개사, 시설장비 5개사)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 기업에는 보조금 총 1억6천2백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은 약 정제 및 보조금 교부 후 4월부터 본격적

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조동수 광양시 청년일자리과장은 “시는 사회적경제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며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에는 사회적기업 21개소, 협동조합 77개소, 마을기업 19개소, 자활기업 5개소 등 총 122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소재하고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4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등 총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 무안군,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불공정한 수급은 줄이고, 필요한 지원은 늘리고!

반영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이다.

군은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소득·재산 정보 68종을 바

탕으로, 변동 사항이 있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1,030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변동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필요시 전화 상담 및 가정 방

문을 실시하여 추가 자료를 확인해 수급자의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장영선 사회복지과장은 “확인조사는 단순한 복지급여 점검이 아닌,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을 전하고 군민의 삶에 따뜻하게 보듬기 위한 과정으로, 조사 시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무안군 제공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사업 신청 안내

### 화순군, 이달 18일까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3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를 이달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며,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화순읍, 한천, 춘양, 정풍, 이양, 능주, 도곡, 도암 등 8개 읍·면으로 약 3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주택에 태양광 3kW를 신청할 시 총사업비는 5백여만 원이며, 그중 자부담은 120만 원이다. 설치 완료 후, 매달 4~5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18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대상은 화순군민 중 관내 주택 및 상업건물 소유자이다. 신

청자가 많은 시 취약계층 등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또는 융복합 지원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은 적이 없거나,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 등본이 없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월별 전기 사용량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군은 오는 6월까지 사업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고, 7월 공개 평가를 거쳐 9월 최종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2026년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에너지 복지 혜택을 많은 주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화순/김종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